

보도시점 2023. 5. 31.(수) 15:00 배포 2023. 5. 31.(수) 14: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하고
- 서울시/부산시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을 보고받음

금융위원회는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23.5.31일(수)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이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서울시 및 부산시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을 보고받았다.

- 일시 / 장소 : '23.05.31.(수) 15:00~16:30 / 프레스센터
- 참석 :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정부기관(기재부, 산업부),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민간 위촉위원
유관기관(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거래소, KIC) 등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별첨 1](#))을 통해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글로벌 금융환경은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의 확산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① 먼저,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② 디지털금융, 지속가능금융 등 금융트렌드의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③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④ 금융위 내 신설한 ‘금융 국제화 대응단’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금융사 유치 노력과 서울 및 부산의 지역별 발전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및 부산시에서도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센터 및 금융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여의도 금융클러스터 확충·집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환경 조성, 핀테크 유망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고,

부산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강화, 정책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 해양·파생 금융혁신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계획」을 보고하였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금일 논의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금융중심지 정책 비전·체계도

(별첨1)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위원장)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윤현철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김진경 (02-2100-2891)



비 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중점전략

-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금융사 유치 지원

추진 과제

<p>①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지원 ▪ 핀테크 지원 강화 	<p>②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 외환제도 개선
<p>③ 자본시장의 글로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p>④ 금융중심지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지원 강화 ▪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